

瀛仙洞式土器와 岩寺洞式土器

하인수 (부산박물관)

I

주지하는바와 같이 영선동식토기는 남부 해안지역의 전기 즐문토기의 대표적인 토기형식이다. 암사동식토기는 한강유역을 중심으로하는 중서부지역의 이른 시기의 즐문토기(중서부지역 3시기 편년안으로 했을 경우 전기의 토기형식)로, 침선문과 단사집선문, 원저 내지 첨저의 심발형을 특징으로 하는 토기 형식이다.

이 두 형식의 토기는 일제 강점기에 처음으로 알려진 후 그 간 많은 유적의 조사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많은 연구에 불구하고 신석기시대 전체 즐문토기 편년망 속에서의 상대적 시간적인 위치만 파악되고 있는 실정이고, 토기형식의 세부적인 편년체계나 타형식과의 관계, 이들 토기형식을 담당 한 주민들의 문화적 실상에 대해서는 불명한 점이 많다.

최근에는 이러한 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議論이 진행이 되고 있으나 아직 충분한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지금까지 연구자간에 논의가 분분했던 암사동식토기의 편년문제 특히 영선동식토기와 암사동식토기의 상호 관련성 및 편년에 대해 최근 조사된 남해안지역의 동삼동패총과 범방유적, 서해안지역의 가도유적과 노래섬패총의 발굴성과를 기초로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암사동식토기와 영선동식토기에 대한 기왕의 견해와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이미 연구자들에 의해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하인수1997, 안승모1999) 주요 내용만 언급하기로 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추후 별고를 통해 보완하고자 한다.

II

암사동식토기와 영선동식토기에 관한 주요 견해와 인식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한영희(1983, 1996)는 중서부지역 토기를 암사동식, 금탄리식, 시도식으로 분류하고 특히 암사동식 토기를 구연부에 단사선문계열이, 동체에 중주, 횡주 어골문계가, 저부에는 어골문과 단사선문이 시문된 전형적인 삼부위문양의 암사동 I 식과 단사선문 하에 파상점열 혹은 중호문 등 종속문이 추가되고 동